

“현

대정유 대산공장
생산3부 정제2
과에서 근무하는 박교식
(43)씨. 그는 현재 사는
사택에서 어린이들에게
자전거아저씨로 통한다.
동네 반장을 모르면 몰라
도 그를 모르는 이웃은
없다.

몇 년전 신문에도 몇
차례 실리고 TV방송에
도 소개되었던 그를 실
제로 만나보면 소탈한
이웃집 아저씨처럼 생겼
다. 눈이 커 부엉이라는
별명도 있다지만 몇번
얘기를 해보면 오히려
맥가이버가 더 맞는 별
명처럼 느껴진다.

그가 사명처럼 여기는
일은 버려진 고물 자전거
를 주워다 고쳐서 필요로
하는 주변 어린이나 이웃
들에게 나눠주는 것.

“고물자전거’ 두 세대
만 모으면 탈만한 중고품
자전거 한 대를 거뜬히
만들 수 있고 또한 필요
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 대씩 나누어 줄 수 있
다는 것을 생각하니 버려
진 ‘고물자전거’를 보고
는 차마 그냥 지나칠 수
가 없었습니다.”

자전거 시집보내기

어느날 아파트베란다
에서 바람을 쏘이려 밖을
보는데 그날따라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버려진 자
전거가 눈에 띄더라고요.



리포터탐방



대산 자전거아저씨

박 교 식

물질의 풍요로움속에서 성장한 이들에게는 재활용이라는
말이 낯설게 다가오는 요즘, 우리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버려진 자전거로 재활용 자전거를 만들어 무료
로 이웃에게 나눠주어 몸소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이가
있다. 몇번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출연하였지만 그 유명세보다는 자신이 어딘가에
필요한 존재이다라는 생각에 기쁨뿌듯하다는
그의 얘기를 들어 본다.

제가 고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곰
곰히 생각하다가 ‘고물자
전거’를 고쳐보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는 이웃집 자전거를
빌려서 전부 분해해보고
또 역순으로 조립하면서
기술을 익혔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여러번 실수했
지만 원래 타고난 손재주
로 금방 익숙해졌다. 그
때부터 쓰레기장을 뒤져
버려진 자전거들을 모으
기 시작했다. 자전거를
분해해서 쓸만한 부품들
은 다 모으고 조립해서
재활용자전거를 만들었
다. 그렇게 해서 만든 자
전거가 89년부터 94년까
지 총 32대. 모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었다. 95년 2월
에는 그가 자전거를 시집
보낸 이야기를 글로 써서
충남 건전생활체험수기
를 제출했더니 일반부 최
우수상을 받았다.

“상금을 50만원 주더라
고요. 전액 자전거 부품
구입하는데 썼습니다. 자
전거 고치는 데 쓰라고
준 돈이니까요.”

실제로 그는 타고난 손
재주를 가졌다. 그의 집
에 있는 식탁, 오디오장,
책꽂이, 책상 등 자잘구
레한 생활소품들은 모두
그가 직접 만들었다. 기
계를 전공해서 그런지 물
건을 만지고 뜯어보는데
는 흥미가 있다.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일할 터..

그가 사는 곳이 한적한 사택인 만큼 놀이시설이 부족한 어린이들에게는 자전거가 필수품이다. 봄, 여름철에는 저녁 9시까지 자전거를 타고 놀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자전거가 고장나면 당장 고쳐주는 사람이 아쉬운 형편.

“지금은 꼬마애들이 자전거가 고장나면 바로 저희 집으로 전화해요. 저희 집 전화번호는 다들 외우고 있거든요. 사실 저녁에 회사마치고 와서 쉬는 시간이 없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제가 고쳐준 자전거를 아이들이 기분 좋게 타고 다닐 때 그때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종종 사탕, 과자 등을 사서 박교식씨에게 가져오기도 하고 동네 구멍가게에서 산 껌을 까서 입에 넣어주기도 한다고 한다. 사실 시간을 들여 자전거를 고치고 받는 대가로는 얼마되지 않는 것이지만 이 세상 어떤 선물보다도 더 값진 선물인 셈이다.

“제일 보람을 느낄 때요? 제가 고쳐준 자전거를 애지중지 여기며 잘 타고다닐 때죠. 그것만큼 기분 좋은 것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언짢았던 적은 있긴 있어요. 간혹 가다가 제가 당연히 고쳐주는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이 여길 때가 있어요. 자전거를 고쳐달라고 통명스럽게 부탁하고 제가 다 고친 후에 아무말도 없을 때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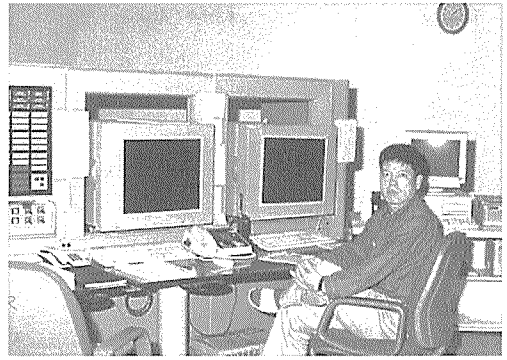
그럴때는 이 일을 왜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디선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에 마음을 고쳐먹는다 한다.

이일을 하면서부터 한때 부인과도 갈등을 겪었다. 늘상 자전거를 고치다보니까 항상 옷에 기름때가 묻어있고 지저분한 모습으로 다니는 것을 부인이 싫어했기 때문이다.

“처음엔 싸움도 많이 했죠. 저의

어머니 까지 동원해서 그만하라고 했는데 아무 소용없더라구요. 그런데 지금은 제 영향을 많이 받은 탓인지 조금은 자제를 하는 것 같아요.”

옆에서 듣고 있던 부인이 한마디 거든다.



▲ 근무중 잠깐 짬을 내어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전거를 고치지만 사람들이 일단 공짜라는 생각에 자전거를 받아 아무렇게나 방치해서 또다시 고물자전거로 될 때는 꽤 씁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한다.

“하지만 이일을 하면서 짜증이 났던 경우는 한번도 없어요. 꼬마애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면 보람을 느끼죠. 요즘 꼬마들은 재활용에 대해 관심이 커져서 저의 고마움을 알아요.”

그는 앞으로의 소망으로 사택내편의차원에서 일단 자전거 수리창고를 하나 마련하고 싶다고 밝힌다.

“지금은 자전거부품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1층베란다에다 두고 쓰고 있는데 보기에다 지저분해요. 1층에 사는 사람들이 뭐라 하지는 않지만 많이 미안하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인데도 묵묵히 자기 일이라 여기고 살아가는 그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다. 마지막으로 박교식씨는 한마디를 덧붙인다.

“이 일은 제가 손을 움직일 수 있는 한 계속 할겁니다. 영리목적이 아니니까요.”



▲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전거를 고치는 모습

<글 / 조상범>